

“내 가 너무 엄마하고 그럴 수 없이 친한 사
이아. 오늘 집에 놀러 갈 테니 기다려.”
12월 초, 오갈 데 없는 치매 환자들의
보급자이던 김해 효능원을 찾았을 때 한 할머니가
반색하며 건넌 인사였다. 일순 당황했지만 김정자
(53·연화정)원장의 눈짓에 “네, 할머니! 꼭 집에
오세요.”라고 대답하며 손을 잡아드렸다. 치매를 앓
으며 ‘나’와 가족, 사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인
효능원의 일상은 늘 이렇다.

32명의 치매와 중증 중풍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
는 효능원. 수년째 자신을 보살피고 있는 김원장을
향해서도 욕을 퍼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처음 만난
듯 ‘누구?’고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 물음은 ‘내가 누구?’는 철박한 물음인지도 모
르지만 당하는 사람에겐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밥을 안 쥐 배가 고프다’거나 ‘원장이 내 돈을 가
져갔다’는 말로 봉사자들이 김원장을 오해하게 만
드는 경우도 허다하다. 김원장은 그런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어오고 있는 효능원의 안주인이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김원장과
치매 노인들과의 인연은 1995년으로 거슬러간다.
김정자원장이 김해 성모병원 간호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장기 입원으로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긴 한 치
매 할머니의 퇴원 결정이 내려졌다. 중증이라 보낼
시설조차 마땅치 않아 행려병자로 보호 받게 하기
위해 구청 앞에 데려다 놓기로 했다. 동지 하루 전

**노인들 보낼때마다 인생무상 절로
본인은 암투병중, ‘고통’은 뒷전
내년 7월 ‘정부인가시설’이 소원**

이라 몹시 추웠던 그 날, ‘내 엄마라면’ 하는 생각
에, 구청 앞을 서성거리던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온
것이 시작이었다.

“치매 할머니 한 분 모시는 것이 뭐 어렵겠나 했
는데 소문이 나자, 집 앞에 (치매노인)테레라라 놓
고 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나중엔 아파트가 비좁
아 도저히 모실 수 없을 정도가 돼 버렸어요.”

따로 아파트 하나를 더 빌려 거기에 모시다가 결
국 2002년 집을 짓기 시작했다. 퇴직금과 저축했던
돈을 모두 투자해 복지시설 인가를 받을 요량으로
효능원을 지었지만 처음엔 긍정적이던 김해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보조금
한 푼 없이 32명으로 늘어난 대식구의 생계를 꾸려
야 하는 가장이 돼 버렸다. 병원 치료가 잦은 효능
원 식구들의 병원비, 치료비는 물론 하루에도 수십
개씩 소비되는 기저귀를 충당하는 것도 쉽지 않았
다. 남편의 연금과 김원장이 병원아르바이트로 버
는 돈, 강의료 등을 고스란히 쏟아부어야 했다. 남
편 류양렬(63)씨는 효능원의 울타리이자 일꾼이 되
었고 새벽 2~3시가 넘어야 잠자리에 드는 것도 다
반사였다.

“아침에 쌀 씻으면서 내일 걱정을 해야 하는 날
들도 많았어요. 힘들 때마다 언제나 부처님은 내 편
이 돼 주셨지요.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
는 일을 해왔으니 이 모두 부처님 덕입니다.” 부처
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김정자원장은 말

끝에 눈물을 내비쳤다.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
고 죽을 결심을 했지만 부처님께 기도하며 삶의 지
혜를 찾았던 김원장이기에 매일 아침 청수를 올리
고 하루를 시작할 정도로 늘 부처님을 생각하며 살
고 있다.

황대선원 조실 성수 스님은 김원장에게 큰 영
향을 준 마음의 스승이다. 조그마한 휴지 한장도 반으
로 갈라 사용하며 “남비는 자연에 빛지는 것”이라
는 가르침을 주셨던 성수 스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있다.

“치매에 걸렸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치매가
살아온 과거를 여실히 드러내는 삶의 거울 같아 놀
랄 때가 많아요.” 착하게 산 사람은 치매 증상도 심
하지 않다고 귀띔한다. 노인들 치매를 늘상 보아오
며 김 원장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연기(緣起)속에 존
재함을 저절로 알게 됐고 지은대로 받는다는 인과
의 도리도 터득했다. 부모처럼, 때론 자식처럼 보살
피던 어르신들을 169분이나 떠나보내게 되자 무상
의 도리는 절로 익혀졌다. 치매와 중풍에 걸린 어르
신들과 함께 하는 나날이 고되지만 정진과 깨달
음의 시간으로 화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극심한 피로로 파김치가 되는 날이 계속
되자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다. 지금 김원장은 항암
치료 중이다. 다행히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경과
가 좋지만 항암 치료 휴유증으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렸다. 가발을 쓰고 있지만 어르신들에게 아
프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원장은 암
걸린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요즘 하고 있다.
효능원이 정부 인가 시설이 되려면 내년 7월까지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그 비용 3억 8천만원 중 국
가보조금 1억 외에 2억 8천만원을 더 마련해야 하
는데 압박금으로 1억원이 나온 것이다.

“부처님이 도우신 거죠. 시설 보완해서 인가를
받으면 더 많은 분들을 좀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
지 않을까 해요. 부처님이 계시니 다 잘 되겠지요.”
암조차 감사하다는 김원장을 가로막을 장벽은 없
어 보였다. 여러 어려운 앞에 중도 포기도 생각했지
만 “할머니들과의 약속이 있는데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할머니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아
들의 말이 힘을 얻고 마음을 다잡았다. 의예과를 다
니고 있는 아들 경철이가 김원장의 뒤를 잇겠다고
하는 일도 기쁘중 하나다.

개인 사비뿐 아니라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자
기가족들도 외면한 치매 환자를 보살피는 김 원장.
그는,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국가가 치매 문제를 써인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
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안
고 가야 할 모두의 공업(共業)이기 때문이다.

김원장의 마지막 원은 효능원이 부처님도움이
되는 것이다. 불법을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어르신들
과 나누며 행하는 생활 속 수행처가 되길 발원하고
있다.

김원장을 향해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고 묻는 사람이 많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간단
하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진 걸 나눠주세요. 줬을
때 상대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의 그 기쁨은 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글=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김해 효능원 전경.



효능원 김정자 원장

**내 부모라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요**

9년째 치매·중풍 환자 돌봐...의대생 이들도 “봉사 대 잇겠다”



치매와 중풍에 걸린 어르
신들과 함께 한 날들이 비
록 고되었지만 오히려 정
진과 깨달음의 시간으로
생각한다는 김정자 김해
효능원 원장이 할머니들
과 답소를 나누고 있다.

정토사 건립 불사 一千佛殿

이미다 부처님, 무량수 여래불께 귀의하여 크나큰 가르침 깨달으며 불자님들과 함께 법연을 맺어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성불하여지이다.



귀의 삼보하옵고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과 마음마다 불보살님의 가피속에 보리반야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 드
립니다.오늘도 고통의 그늘 속에서 몸과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채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
습니다. 또한 불연을 만나고도 무상한 마음을 터득하지 못하며 탐, 진, 치 어두운 마음으로 하루하
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을 서원하
는 열불만일회 삼각산 정토사는 이 땅에 불국정토를 이룩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불심이 깊
은 불자들이 한 마음의 자재한 법을 배우고자 모여 들었습니다. 도량이 협소해진지라 충분한 수행공
간과 부처님 도량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싶은 바람은 모든 대중의 마음속에 한결 같았습니다.
이에 정토사에서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만민의 기도도량과 교화의 도량으로 면모를 일
신하고자 법당 중창 불사의 인력을 세웠습니다. 법당이란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고 삶을 가다듬는
곳이자 기도 정진에 임하며 자기의 신앙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 정토사 중창불사 365일 특별 관음기도
· 일제 : 2004. 12. 5. 오전 10시
·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기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정토삼부경 강의
- 일천불 부처님 조성불사
1인 1불 30만원(분납 가능), 설만제자는 100만원 이상입니다.
- 법당불사 내역 : 대들보 (대 중 소), 주춧돌, 기둥, 문짝, 시멘트
- 불사동참 입금계좌
온라인 : 농협 204044-52-048294 (예금주 박창식) * 불사금은 분납 가능합니다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공극락세계가 이루어 진다.

근 무량수경 근

사실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불사 동참을 권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나, 부처님께서
는 이런 때일수록 공덕을 짓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이르시
기를 “신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본래 불사란 인연 있는 이는 더욱 깊은 신
심을 갖도록 하고 무연 중생에게는 인연을 맺어 현재에서나 내세에서나 복락을 누리게 하여 깨
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불자님 한분 한분이 인력을 세워서 금번
불사에 동참한다면 이러한 인연의 공덕으로 무명의 업장을 벗어 버리고 마음을 깨달아 성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심이 지극하신 불자님들의 정성으로 이 중창 불사의 원만 회향을 기원하며,
아울러 동참하여 주신 분들의 인연과 공덕이 후대에까지 길이길이 회향되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
히 발원하면서 다시 한번 불자님 가정에 불은이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무 무량수 여래불 나무 무량수 여래불 나무 무량수 여래불
열불만일회 삼각산 정토사 주지 응현

정토사 정기법회 안내

- 매월 초하루 · 신중기도 : (음) 1일 ~ 3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산신제일 : (음) 8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보름인등법회 : (음) 15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지장제일 : (음) 18일 오전 10시 30분

열불만일회 정 토 사 주지 박성산 합장
자성미터원 주지 박응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523-61번지
전화 : (02)396-3405, 379-5502